

문화시론

이윤추구로 무너지는 "현"

◇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신문경쟁

차명홍

(신문방송대학 언론연구과장)

최근 미국의 신문사들은 매 아닌 불황과 체제도 판대부수가 하락하면서 그리고 내심 고심중이라고 한다. 여기에 는 하루가 다르게 발하는 경쟁을 생존을 위한 대대적 공격을 보여주고 있다. 대부 는 언론은 침묵했다. 우리는 여에서 날카로운 비판과 감시의 눈을 잃어버린 언론이 도망쳐 될 충격을 보게된다. 위의 예에서도 보았

그런데, 그 중 아주 흥미있는 분석이 하나 있다. 그것을 살펴 보면 미국의 언론이 독자로부터 미망에 휩싸인 것 지적적인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컴퓨터화

다섯 일표지인 CNN 방송은 전체적으로 컴퓨터화 경영인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이는 방송을 경영한 것이다. 나머지 는 여의 대대적 불 수 밖에 없었다. 우리는 현재 살아있는 (2) 지니미즘을 구경했던 미국의 언론을 기억한다. 때로날 당시 는 전경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으로 판권자들의 기쁨이 되기도 했다. 그들은,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이라고 하고 있다. 언론이 이윤을 좇아 기업화되고 비배경에서 패자가 뒤를 함정

그에 비해 우리나라의 신문

은 어미한가, 우리 나라의 우의

언론은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

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 우리 신문은 아직 독자들에게서 절대적(9)인 신임을 얻고 있

지만, 우리나라 모든 신문

의 하루 발행부수가 약 1천2백

만부수라는 사실과 현재 신문

지 소비량이 무려 98만5천부이

라는 사실은 양적으로 엄청난

지 성장한 우리 신문의 현주소

를 말해준다. 그러나, 그 양적

성장을 양면이 열려나 총성

을 내리고 있다. 가히 참수

문이란 말도 나을법하다. 또한,

난 면을 제주시 못해 신문의

절차적 떨어지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다. 한마디로 언론

의 기능은 상실하고 이윤

만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전락

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아직까진 나을을 뿐 심

시각조차 눈이 되고 있는

ABC(신문부수중계제)제도로

바뀌고있다. 각 신문의 반

대도 이제로는 시행할 일두수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문의 사회적 기능을 새로

은 정보의 감시-비판의 역할을

실현하는 것이다. 스스로 사회

적 책임과 윤리를 다하지 않는

다면 그것은 존재하나나 한

것이다. 또한, 그것은 자기 스

스도 몰라를 계속하는 길이라

는 것을 앞서 미국의 예를 보

아시오도 수 있을 것이다.

흔히 출판부가 많이 다수

카를다는 아가기를 사했다. 이

번이 권력화되고 자본화되는

순간 그 어느때보다 부도덕한

업의 도구가 될 수 있다. 그

러한 행태를 버리지 않기 위해

다 이제 우리 신문은 스스로

회생할때까지 할 신념이 없

다. 신문이 역사화되기 개

회 개조되고 있다. 내 상생에

지신도 포함되는 것을 앞

아 할 것이다. 앞으로 언론

이 권력과 이윤추구에 열광

하고 그리고 언론이 사회의 책임

을 잊고 단지 '돈벌이 수단'

으로서 기업으로 전락할 때

의 결과로 우리는 특종 기적

여야 한다.

교수수필

장일순
(사대 교수 사회학)

대학생활을 마치고 사회에 진출하는 여러 졸업생의 심경은 시련함과 성찰함이 교차되는 묘한 감정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러한 마음은 그동안 무한한 가능성과 더불어 선택된 사람으로서 각자의 전공분야에서 나름대로 많은 법칙과 이론들의 청산리들을 다룰 수 있었고 또한 나름대로 자유를 만끽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갖고 함께 희망과 패기로 힘찬 도전을...

한번 대학생활을 해봐도 볼 수 있다. 강의실에서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교수와 학생, 학생과 학생들의 활발한 토론과 논쟁이 벌어져 스나 해나 그리고 모둠활동의 사회주의 내지는 공산주의 이론이나 이데올로기 등에 대해서 까지도 그런대로 자유롭게 토론하고 논쟁을 할 수가 있었고 때로는 경찰에 대한 불복을 보여도 등용문인상대로도 보

한번 대학생활을 해봐도 볼 수 있다. 강의실에서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교수와 학생, 학생과 학생들의 활발한 토론과 논쟁이 벌어져 스나 해나 그리고 모둠활동의 사회주의 내지는 공산주의 이론이나 이데올로기 등에 대해서 까지도 그런대로 자유롭게 토론하고 논쟁을 할 수가 있었고 때로는 경찰에 대한 불복을 보여도 등용문인상대로도 보

한번 대학생활을 해봐도 볼 수 있다. 강의실에서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교수와 학생, 학생과 학생들의 활발한 토론과 논쟁이 벌어져 스나 해나 그리고 모둠활동의 사회주의 내지는 공산주의 이론이나 이데올로기 등에 대해서 까지도 그런대로 자유롭게 토론하고 논쟁을 할 수가 있었고 때로는 경찰에 대한 불복을 보여도 등용문인상대로도 보

한번 대학생활을 해봐도 볼 수 있다. 강의실에서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교수와 학생, 학생과 학생들의 활발한 토론과 논쟁이 벌어져 스나 해나 그리고 모둠활동의 사회주의 내지는 공산주의 이론이나 이데올로기 등에 대해서 까지도 그런대로 자유롭게 토론하고 논쟁을 할 수가 있었고 때로는 경찰에 대한 불복을 보여도 등용문인상대로도 보

한번 대학생활을 해봐도 볼 수 있다. 강의실에서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교수와 학생, 학생과 학생들의 활발한 토론과 논쟁이 벌어져 스나 해나 그리고 모둠활동의 사회주의 내지는 공산주의 이론이나 이데올로기 등에 대해서 까지도 그런대로 자유롭게 토론하고 논쟁을 할 수가 있었고 때로는 경찰에 대한 불복을 보여도 등용문인상대로도 보

졸업생에게 하고픈 말

고 대학생활을 해온 것이 오 년의 대학생활이 아닌가 생각된다. 어찌보면 대학생활은 대학밖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또한 대학생활이 가져다 준 값진 경험이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이러한 마음은 그동안 무한한 가능성과 더불어 선택된 사람으로서 각자의 전공분야에서 나름대로 많은 법칙과 이론들의 청산리들을 다룰 수 있었고 또한 나름대로 자유를 만끽

한번 대학생활을 해봐도 볼 수 있다. 강의실에서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교수와 학생, 학생과 학생들의 활발한 토론과 논쟁이 벌어져 스나 해나 그리고 모둠활동의 사회주의 내지는 공산주의 이론이나 이데올로기 등에 대해서 까지도 그런대로 자유롭게 토론하고 논쟁을 할 수가 있었고 때로는 경찰에 대한 불복을 보여도 등용문인상대로도 보

한번 대학생활을 해봐도 볼 수 있다. 강의실에서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교수와 학생, 학생과 학생들의 활발한 토론과 논쟁이 벌어져 스나 해나 그리고 모둠활동의 사회주의 내지는 공산주의 이론이나 이데올로기 등에 대해서 까지도 그런대로 자유롭게 토론하고 논쟁을 할 수가 있었고 때로는 경찰에 대한 불복을 보여도 등용문인상대로도 보

한번 대학생활을 해봐도 볼 수 있다. 강의실에서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교수와 학생, 학생과 학생들의 활발한 토론과 논쟁이 벌어져 스나 해나 그리고 모둠활동의 사회주의 내지는 공산주의 이론이나 이데올로기 등에 대해서 까지도 그런대로 자유롭게 토론하고 논쟁을 할 수가 있었고 때로는 경찰에 대한 불복을 보여도 등용문인상대로도 보

한번 대학생활을 해봐도 볼 수 있다. 강의실에서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교수와 학생, 학생과 학생들의 활발한 토론과 논쟁이 벌어져 스나 해나 그리고 모둠활동의 사회주의 내지는 공산주의 이론이나 이데올로기 등에 대해서 까지도 그런대로 자유롭게 토론하고 논쟁을 할 수가 있었고 때로는 경찰에 대한 불복을 보여도 등용문인상대로도 보

한번 대학생활을 해봐도 볼 수 있다. 강의실에서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교수와 학생, 학생과 학생들의 활발한 토론과 논쟁이 벌어져 스나 해나 그리고 모둠활동의 사회주의 내지는 공산주의 이론이나 이데올로기 등에 대해서 까지도 그런대로 자유롭게 토론하고 논쟁을 할 수가 있었고 때로는 경찰에 대한 불복을 보여도 등용문인상대로도 보

한번 대학생활을 해봐도 볼 수 있다. 강의실에서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교수와 학생, 학생과 학생들의 활발한 토론과 논쟁이 벌어져 스나 해나 그리고 모둠활동의 사회주의 내지는 공산주의 이론이나 이데올로기 등에 대해서 까지도 그런대로 자유롭게 토론하고 논쟁을 할 수가 있었고 때로는 경찰에 대한 불복을 보여도 등용문인상대로도 보

한번 대학생활을 해봐도 볼 수 있다. 강의실에서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교수와 학생, 학생과 학생들의 활발한 토론과 논쟁이 벌어져 스나 해나 그리고 모둠활동의 사회주의 내지는 공산주의 이론이나 이데올로기 등에 대해서 까지도 그런대로 자유롭게 토론하고 논쟁을 할 수가 있었고 때로는 경찰에 대한 불복을 보여도 등용문인상대로도 보

한번 대학생활을 해봐도 볼 수 있다. 강의실에서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교수와 학생, 학생과 학생들의 활발한 토론과 논쟁이 벌어져 스나 해나 그리고 모둠활동의 사회주의 내지는 공산주의 이론이나 이데올로기 등에 대해서 까지도 그런대로 자유롭게 토론하고 논쟁을 할 수가 있었고 때로는 경찰에 대한 불복을 보여도 등용문인상대로도 보

한번 대학생활을 해봐도 볼 수 있다. 강의실에서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교수와 학생, 학생과 학생들의 활발한 토론과 논쟁이 벌어져 스나 해나 그리고 모둠활동의 사회주의 내지는 공산주의 이론이나 이데올로기 등에 대해서 까지도 그런대로 자유롭게 토론하고 논쟁을 할 수가 있었고 때로는 경찰에 대한 불복을 보여도 등용문인상대로도 보

한번 대학생활을 해봐도 볼 수 있다. 강의실에서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교수와 학생, 학생과 학생들의 활발한 토론과 논쟁이 벌어져 스나 해나 그리고 모둠활동의 사회주의 내지는 공산주의 이론이나 이데올로기 등에 대해서 까지도 그런대로 자유롭게 토론하고 논쟁을 할 수가 있었고 때로는 경찰에 대한 불복을 보여도 등용문인상대로도 보

교육의 문화

신문을 펼쳐들 때 사회

를 읽는 데는 의미가 있다.

그곳에서 매일의 사건

을 재미있게 명쾌하게 해

해 주는 친구이자 거대한

대를 굶주리는 '홍사'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시사문화의 주인공.

그 중 우리나라 시사문화

의 선례, '교보우영'을

만나 보았다. (권지자)

▲사회: 신문사사회의 의

의 및 '만능'과 '가장'의 지

▲경쟁: 1만화와 4만화

만화가 이상에 호소하는 반면

4만화는 감성에 호소한다.

▲김정환: 좋은 아이디어

접근방식이 '지'를 하거나 독

자는 외면한다. '기초'가

가장 중요하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김정환: 좋은 아이디어

접근방식이 '지'를 하거나 독

자는 외면한다. '기초'가

가장 중요하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김정환: 좋은 아이디어

접근방식이 '지'를 하거나 독

자는 외면한다. '기초'가

가장 중요하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김정환: 좋은 아이디어

접근방식이 '지'를 하거나 독

자는 외면한다. '기초'가

가장 중요하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기보다 아이디어를

만들